

과제문①

수탉과 돼지

하늘 나라에 돼지와 수탉이 살았습니다. 돼지는 수탉에게 자신의 예쁜 코를 자랑하며 잘난 척하였습니다.

“내 코보다 더 예쁘게 생긴 코 본 적 있어?”

“아니, 못 봤어. 네 코는 정말 예뻐.”

마음씨 착한 수탉은 돼지가 물어볼 때마다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 나라 임금님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돼지와 수탉을 땅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치, 이렇게 잘생긴 나더러 사람들이나 도와주라고?”

돼지는 불평을 하였습니다.

한편, 수탉은 사람들을 도와줄 일을 찾아 나섰다가 시계가 없어서 아침이 된 것도 모르고 늦잠을 자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결심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아침마다 사람들을 깨워 주는 거야. 그럼 늦잠을 자는 일이 없을테니까.’

이튿날부터 수탉은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얼른 지붕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꼬끼오! 꼬끼오!”

사람들은 아침을 알려준 수탉에게 고마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쿵쿨 잠만 자며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 나라 임금님이 돼지와 수탉을 불러서 수탉에게 멋진 왕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날마다 쿵쿨 잠만 잔 돼지에게는

“너처럼 게으른 녀석에게는 그 예쁜 코가 어울리지 않아!”

하며 돼지의 코를 꼭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코. 내 코가 이렇게 되다니! 임금님, 제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돼지는 그제야 엉엉 울며 후회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課題文①

おんどり 雄鳥と豚

天の国に豚とおんどり雄鳥が住んでいました。豚はおんどり雄鳥に自分のきれいな鼻を自慢しては、
えら偉そうにしました。

「私の鼻よりもきれいにできた鼻を見たことがあるかい？」

「いや、見たことがないね。きみの鼻は本当にきれいだよ。」

おんどり
気立ての良い雄鳥は、豚がたずねるたびにほめてあげました。

ある日、天の国の王様が人びとを助けなさいと、豚とおんどり雄鳥を地上に送りました。

「チッ、こんなにハンサムな私に向かって人びとを助けるだと？」

豚は不平を言いました。

一方、おんどり雄鳥は、人びとの助けになることを探しに出ましたが、時計がなくて朝になったことも知らずに朝寝坊する人びとの姿を見て決心しました。

「そうだ、私は毎朝、人びとを起こしてあげよう。そうすれば、朝寝坊をすることがなくなるだろうから。」

翌日からおんどり雄鳥は、日が昇りだす頃にサッと屋根に登って歌を歌いました。

「コケコッコー！コケコッコー！」

人びとは、朝を知らせてくれたおんどり雄鳥に感謝しました。

しかし、豚はいびきをかきながら寝ては遊んでばかりいました。

そんなある日、天の国の王様が豚とおんどり雄鳥を呼んで、おんどり雄鳥に素敵な王冠を頭にかぶせてあげました。毎日いびきをかき寝ているだけの豚には

「お前のようななまけものには、そのきれいな鼻は似合わない！」

と豚の鼻をぎゅっと押して平らに作ってしまいました。

「ああ、私の鼻。私の鼻がこんなになるなんて！王様、私が間違っていました、どうか一度だけ許してください。」

豚はその時になってやっとワンワン泣いて後悔したが、むだだったそうです。